

인천, 대구, 부산 지역 2021년 공연시장 현황과 특성

통상적으로 내수시장에서 하나의 분야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억명 정도의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총 인구 5천만 명인 한국 공연 시장은 현재 기반과 매출 모두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공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연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2021년 지역 공연시장의 인프라와 특성, 현황에 대해 인구 200만 명 이상의 광역시인 부산, 대구, 인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역 기본 정보

	인천	대구	부산
면적	1,063km ²	884km ²	770km ²
인구수	2,945,009명	2,390,721명	3,356,311명
지역내총생산(백만원)	90,040,500	58,094,694	93,012,134
1인당 개인소득(만원)	1,958	1,920	1,972
1인당 민간소비(만원)	1,655	1,796	1,813
공연장수	76개	111개	141개
평균 티켓가격	22,025원	31,161원	67,026원

- 면적 및 인구수, 지역내총생산,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민간소비 : 2021년 10월 기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조회값

- 공연장수: 2021년 10월 기준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공연시설 DB에 등록된 공연장 총계

- 평균 티켓가격: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기준 2021년 1월~10월 각 지역에서 발생한 공연매출액을 유료예매수로 나눈 값(조회 기준일시 2021.11.4. 16:00)

- 부산은 인구수, 지역내총생산이 세 도시 중 가장 높다. 1인당 개인소득은 대구가, 1인당 민간소비는 인천이 가장 낮았다.

- 전체 공연장 수는 부산이 141개로 가장 많았다. 대구 111개, 인천 76개였다. 대구는 인구수 대비 공연장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이며, 인천은 인구에 비해 공연장 인프라가 가장 부족했다.(인구 100만 명당 공연장 수 대구 31개, 부산 24개, 인천 14개)

- 대구는 1천 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 8개뿐만 아니라 대명공연문화거리와 같은 소극장 밀집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공연장 인프라 환경이 세 도시 중 가장 균형감 있게 조성되었다.

- 부산의 공연장 인프라는 인구수나 지역 경제 규모에 비해 취약한 편이지만, 2019년 뮤지컬 전용극장 드림씨어터에 이어, 2023년 개관 목표로 부산 오페라하우스¹⁾와, 부산 국제아트센터²⁾가 건립 중이다.

- 부산의 평균 티켓가격은 67,026원으로 인천의 세 배, 대구의 두 배나 높다. 이는 2021년 드림씨어터에서 <위키드>와 <갯츠> 등 티켓 단가가 높은 대형 뮤지컬이 장기 공연을 진행한 영향이며, 2022년 <라이온킹> 내한 등 적극적인 대형 뮤지컬 유치로 한동안 비슷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1년(1월~10월) 부산 지역 공연 관객의 60.1%가 뮤지컬 관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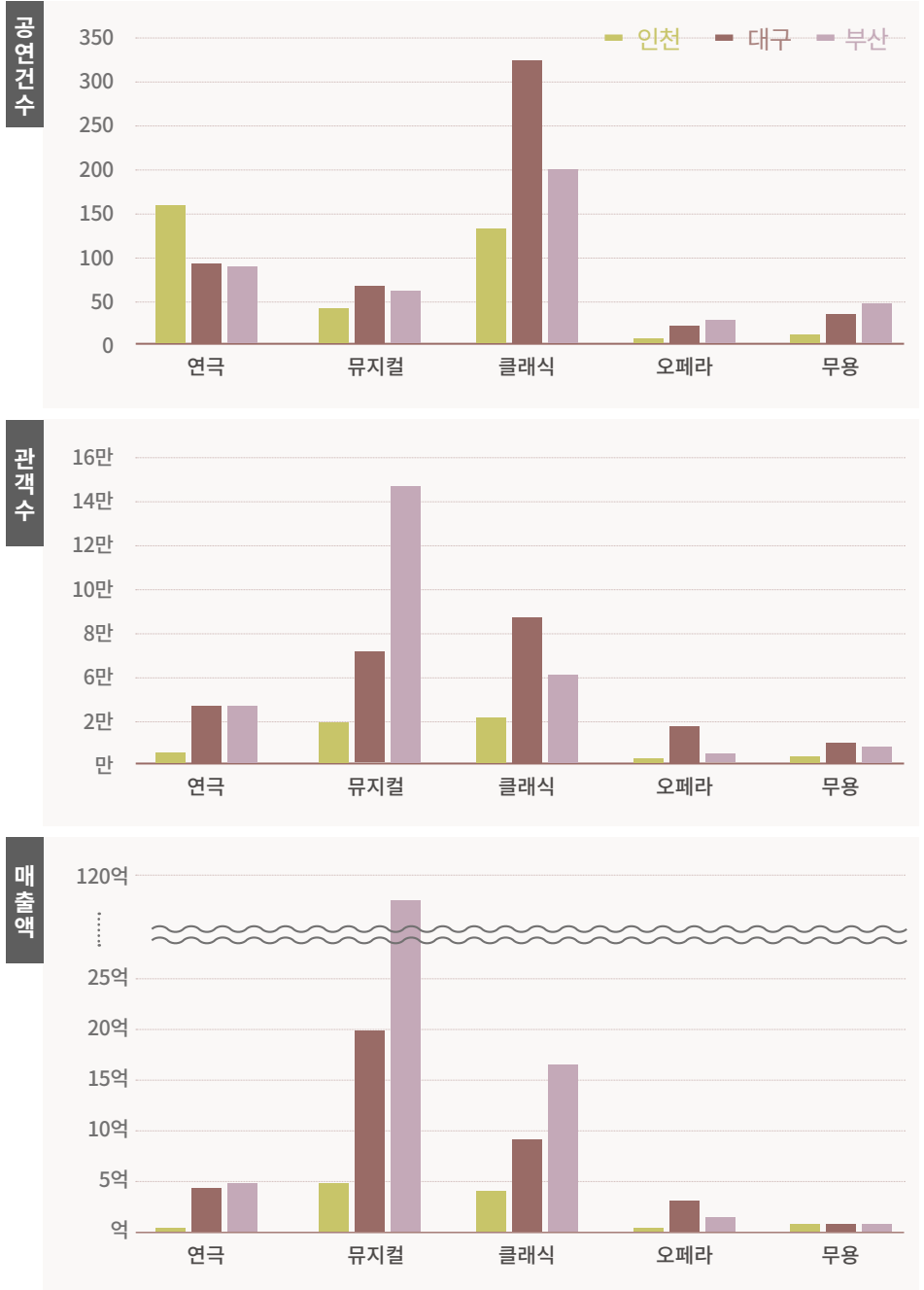
1)

2023년 부산 동구 북항 해양문화지구에 들어서는 종합공연장.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대극장 1,800석, 소극장 300석과 야외공연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2)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진구 시민공원 부지 2만9408m²에 연면적 2만m² 규모(지하 1층~지상 3층)로 올해 착공했다. 20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과 400석 규모 챔버(chamber-실내악)홀,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선다. 2023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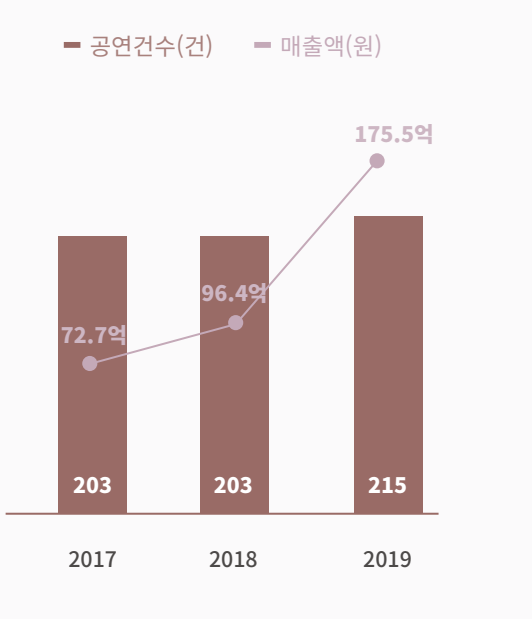
장르별 공연실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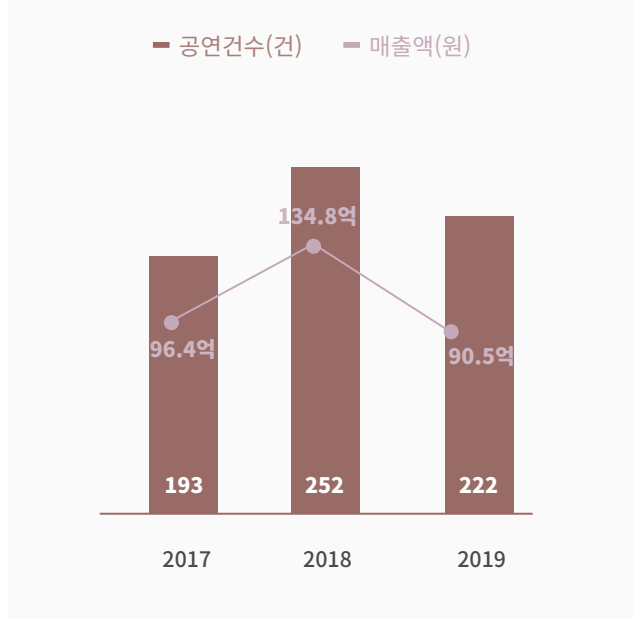
2021년(1월~10월) 인천 | 대구 | 부산 지역 공연건수, 관객수, 매출액

- 2021년(1월~10월) 전체 공연건수는 대구가 가장 많았다. 세 지역 모두 공연건수가 가장 많은 장르는 클래식이었다.
- 관객수와 매출액은 부산이 가장 높았다. 오페라 장르를 제외하면 모든 장르에서 부산 지역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인천의 공연 시장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건수는 대구의 44%, 관객수는 부산의 23.5% 수준이었다.
- 부산의 공연시장 매출액은 약 134억 원에 달했다. 이는 대구의 4배, 인천의 13배에 해당 하는 수치다. 이중 뮤지컬 매출액은 111억 원으로, 전체 부산 공연시장의 82.9%를 차지했다. 이는 대구 뮤지컬 매출액(20억)의 5배가 넘는 규모이다. 부산 공연시장의 성장은 드림씨어터를 중심으로 한 뮤지컬 장르가 견인하였다. 이 기간 부산에서 발생한 공연 매출액의 68.5%가 드림씨어터에서 발생했다.

부산 뮤지컬 공연건수와 매출액 연별 추이



대구 뮤지컬 공연건수와 매출액 연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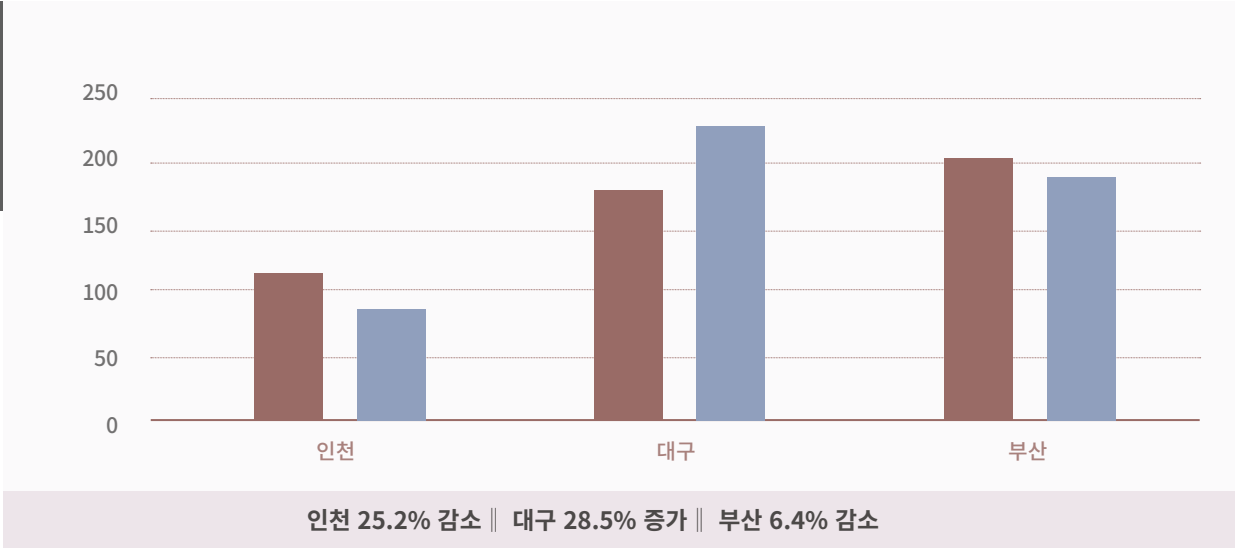
2017년~2019년 대구, 부산 뮤지컬 판매 현황 비교(인터파크 티켓 판매 현황 기준)
 2018년까지 대구의 뮤지컬 시장은 서울 외 지역 중 가장 컸으나,
 2019년 부산 드림씨어터 개관 후 부산의 뮤지컬 시장이 대구를 추월했다.

- 드림씨어터 개관은 부산 지역 관객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인접 지역 관객 유입을 통해 부산 공연시장을 키웠다. 드림씨어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서 공연한 대형 뮤지컬 <라이온 킹>, <위키드> 공연 예매자 중 40%가 부산권역 외 지역 구매자였다고 한다.
- 2021년 대구의 오페라 공연건수는 부산(25건)보다 3건 적었으나 관객수는 부산의 4배 이상, 매출액도 부산보다 약 3.5배 더 컸다. 2021년 대구 국제오페라축제가 오프라인 축제를 재개하고 큰 호응을 얻으면서 대구는 세 지역 중 가장 높은 오페라 매출액을 기록했다.
- 인천의 공연시장은 전 장르 공연 실적이 타 지역 대비 현저하게 낮다. 인천은 인천 시립예술단, 아트센터 인천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클래식 시장으로 평가받아 온 지역으로서, 타 지역과는 달리 클래식이 뮤지컬에 버금가는 매출액을 기록할 만큼 클래식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인천의 클래식 시장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 2021년 부산의 클래식 시장은 공연건수와 관객수 면에서 대구에 뒤졌으나 대구의 1.6배, 인천의 3.8배가량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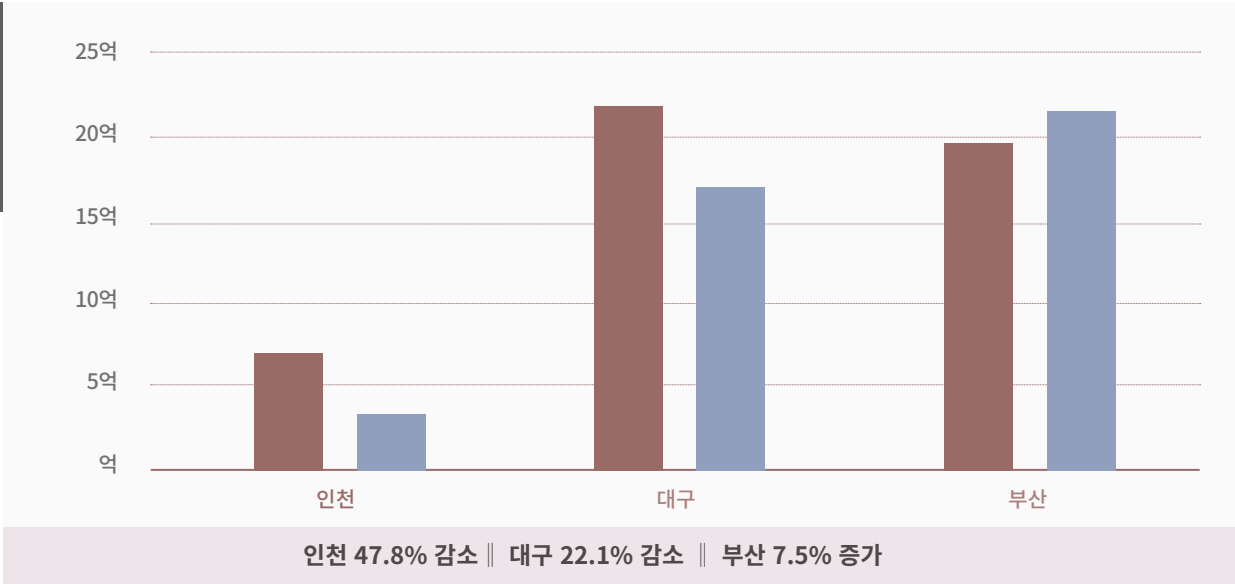
코로나 이전(2019년 3분기)과 비교한 인천, 대구, 부산 지역의 공연시장 추이

■ 2019 3분기 ■ 2021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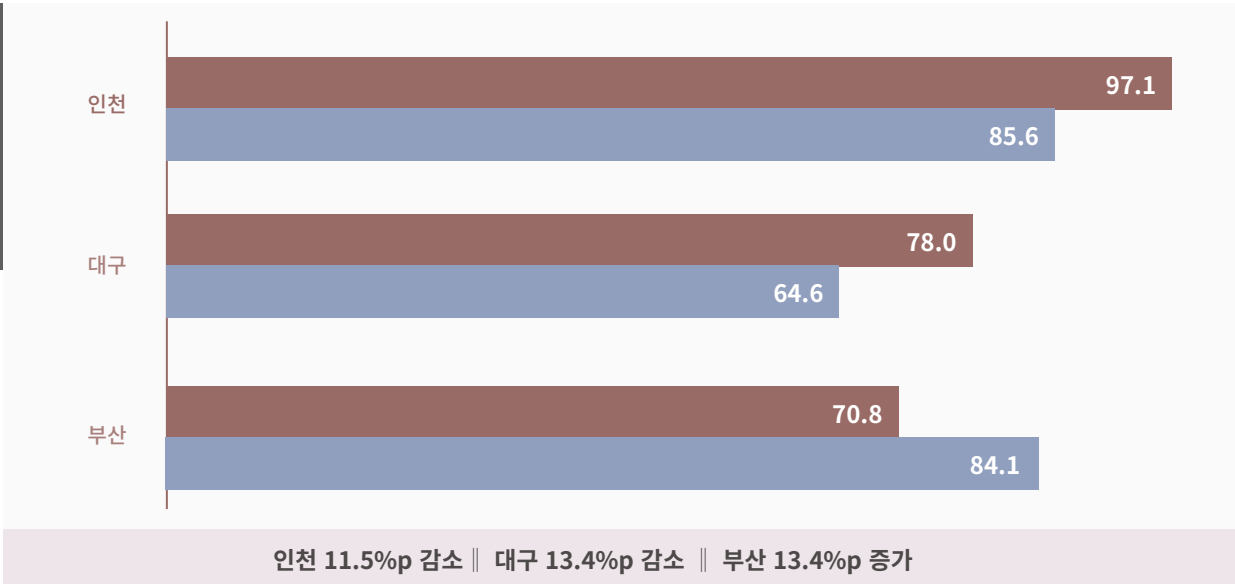
공연건수
(건)



매출액
(원)



유료관객비중
(%)



3) 공연법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 전송 의무) 시행은 2019년 6월 25일부터이므로 유의미한 집계값으로 비교하기 위해 2019년 3분기와 2021년 3분기를 비교했다.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와 2021년 3분기를 비교할 때³⁾ 올해 3분기 공연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다소 축소되었다. 단 대구의 공연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보다 28.5%가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월등히 높았던 대구의 클래식 공연건수가 견인한 결과로 보인다.
- 인천이나 대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에 비해 매출액이 하락하였으나 부산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2019년 3분기 드림씨어터의 대형 뮤지컬은 <스쿨 오브 락>이 전부였으나, 2021년 3분기에 드림씨어터에서는 <팬텀>(뮤지컬),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이 상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 2021년 3분기 유료관객 비중은 부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폭 감소했다. 부산 지역의 유료관객 비중 상승은 드림씨어터가 부산 공연시장을 견인하고, 새로 건립될 대형 클래식 공연장을 앞두고 다양한 관객 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부산의 공연시장이 활성화된 결과로 보인다.